

믿음의 법과 아브라함(롬 3:21-4:25)

-믿음과 아브라함 주제가 함의하는 바울의 신학적 논리¹⁾-

이진섭*

1. 머리말: 배경, 논지, 논리 전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에[참조, 롬 3:22, 26; 갈 2:16(x2), 20; 3:22; 빌 3:9] 대한 논의는 약 20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바울 신학계의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되었다.²⁾ 논쟁의 발화점

* 에스라 성경 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본 소고는 필자의 박사 논문 중 6장을[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Ph. D. Dissertation (Brunel University, 2006), 143-160]. 번역, 보완, 증보한 것이다. 필자는 논문에서 현 바울 신학계에 중요하게 논의되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논쟁과 율법주의(nomism) 논쟁을 다루면서 로마서 3:27에 등장한 ‘믿음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 두 논쟁에 새로운 해결책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소고의 목표는 ‘믿음의 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로마서 3:21-4:25에 나타난 바울의 신학적 사고, 즉 믿음 주제와 아브라함 주제를 연결하는 바울의 논리를 잘 설명해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 2) 1795년 MacKnight, *A New Literal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Greek, of All the Apostolical Epistles: with a Commentary, and Notes, Philological, Critical, Explanatory, and Practical, to Which is added, a History of the Life of the Apostle Paul* 6 I, 2nd ed. (London: Longman, Hurst, etc., 1816; org. ed. 1795), 238-239; III, 132, 449의 글부터 그 논의의 시작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격렬한 논의는 19세기 후반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 후 20세기 중반 영어권 학자들에서 다시 일어났다. 1970년대 이후로 이 논의는 북미로까지 넘어와 바울 신학자들 사이에 보다 보편적인 논쟁이 되었다[참조,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은 이 형식에 등장하는 Χριστοῦ 소유격의 번역에 있지만 논쟁 양상은 번역 문제를 넘어서 바울 서신의 믿음 주제, 더 나아가 바울 신학의 주요 주제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되고 있다.³⁾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Χριστοῦ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보아(이하 목적격적 소유격 입장) 이 형식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읽으며 그 토대 위에 이신칭의 주제와 기타 바울 신학을 정리해 왔다.⁴⁾ 하지만 Χριστοῦ 소유격을 주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이하 주격적 소유격 입장) 제기되면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고 또한 다른 각도에서 바울 신학을 조명해 보려는 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⁵⁾

20-22; Campbell, *Romans 1:17-A Crucial Interpretum for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JBL* 113 (1994), 265. 이 논쟁의 전개와 역사에 대해서는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An Investigation of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SBLDS* 56 (Chico: Scholars, 1983), 158-162와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6-30을 보라.

- 3) 참조,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6-32.
- 4) 목적격적 소유격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던(Dunn), 무(Moo), 매트록(Matlock)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목록은 Hays, “ΠΙΣΤΙΣ and Pauline Christology: What is at Stake?” E. E. Johnson and D. M. Hay, eds. (Atlanta: Scholars Press, 1997), 36-37, 각주 4와 그에 보강된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10-11, 각주 22를 참조하라. 한국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아직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논의에 깊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격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대표적으로 김세운, 『바울신학과 새관점』 (서울: 두란노, 2002), 107-116; 이필찬, 『로마서』 (서울: 이레서원, 2005), 85]. 차정식은 이 논의를 고려하지만 결국 전통적인 목적격적 소유격 입장을 선호한다(차정식, 『로마서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48-350). 현대 영역본 중 NRSV는 전통적 입장인 목적격으로 번역하지만 각주에서 주격적 소유격 번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 신학 성서 새 번역도 주격적 소유격 번역의 가능성을 각주에서 언급하고 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 『로마서·고린도 1·2서』, 신약성서 새 번역 6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2002), 51, 각주 16;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 『갈라디아서·에페소서·필립비서·골로사이서』, 신약성서 새 번역 6, 임승필 역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2002), 38, 각주 18.

이런 국면에서 필자는 로마서 안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참조, 3:22, 26) 주격으로 읽는 것이 적절할 뿐 아니라 그 주격 읽기가 로마서 3:27의 ‘믿음의 법’(νόμος πίστεως)이란 의미를 새롭게 밝혀준다고 생각한다.⁶⁾ 필자의 주장을 간단히 네 가지 점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1)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고⁷⁾ 그 지시 대상은 ‘그리스도 사건 전체’를 가리킨다.⁸⁾ (2) 따라서 로마서 3:22은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믿는 자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3) 바울은 이 원리를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3:27에서 ‘믿음의 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⁹⁾ (4) 더 나아가 바울은 어떤 πίστις

-
- 5) 주격적 소유격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헤이스(Hays), 라이트(Wright), 캠벨(Campbell)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목록은 헤이스, “ΠΙΣΤΙΣ and Pauline Christology: What is at Stake?” 36, 각주 3과 그에 보강된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9-10, 각주 21을 참조하라. 주격적 소유격 입장에 있는 한국 학자는 박익수,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 I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53-399; 박익수, “Πίστις του Χριστοῦ는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신학과 세계』 41 (2000), 87-127; 홍인규,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1), 58, 73 등이다. 이한수는 바울이 목적격과 주격 소유격 모두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한다(이한수, 『로마서 1』 (서울: 이레서원, 2002), 318-319).
- 6)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박사 논문 전체를 참조하라. 특별히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88-101를 보라.
- 7)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번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란 개념이 더 선호된다.
- 8) 참조,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89-97. 오그덴(Ogden)과 리처드(Richards)가[C. K. Ogden,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Mariner Books, 1989), 11] 말한 언어 의미의 ‘기본 삼각형(basic triangle)’으로 볼 때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기호(symbol),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개념(thought)을, ‘그리스도의 사건’은 지시 대상(referent)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9) ‘믿음의 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원리’라고 이해하는 전통적 입장이고(참조, Fitzmyer,

단어들이 이 믿음의 법을 가리키는 아이콘(icon)처럼 사용되도록 하였는데, 이런 πίστις를 ‘코드화된 믿음’(coded πίστις)이라고 부를 수 있다.¹⁰⁾ 로마서 1:17은 이 코드화된 믿음을 사용한 대표적 예로서 ‘믿음(의 법)으로 인하여’(ἐκ πίστεως) 의인이 살게 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으며, 바울은 이 선언을 로마서 1-8장에서(넓게는 로마서 전체에서 그리고 특별히 3:21-26과 3:27에서) 풀어 설명하고 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원리를 로마서에서 ‘믿음의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¹⁾

본 소고는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함의 예가 이런 ‘믿음의 법’이란 시각 아래서 가장 잘 이해된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다. 즉, 본고는 필자가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3), 359; Byrne, *Romans*, SP 6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6), 139;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249-250; Osborne, *Roman*, IVPNTC (Downers Grove/Leicester: IVP, 2004), 101; Westerholm, *Israel's Law and the Church's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88), 123-126]. 둘째는 토라의 성격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는(즉, 토라가 ‘행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참조, Friedrich, “Das Gesetz des Glaubens, Röm 3, 27,” *TZ* 10 (1954), 401-417; Wilckens, U., *Der Brief an die Römer, Teilband 1: Röm 1-5*, EKKNT 6/1 (Zürich: Benziger/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245-246; Hübner, *Law in Paul's Thought: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Pauline Theology*, J. C. G. Greig, trans. (English Edinburgh: T. & T. Clark, 1984), 138;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ume I: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Romans 1-8* (Edinburgh: T&T Clark, 1975), 220; Wright, “Romans,” L. E. Keck, ed., *New Interpreter's Bible X* (Nashville: Abingdon Press, 2002), 480, 576-577, 657-658]. 하지만 필자는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새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원리’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97-101.

10) 코드화된 믿음은 3:21-26에 설명된 믿음의 원리(롬 3:27의 ‘믿음의 법’)를 가리키는 아이콘(icon) 같은 것이다. 참조,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72-87.

11) 참조, *Ibid.*, 180-181, 223-224.

주장하는 ‘믿음의 법’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논리적 귀결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을 주격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바울이 3:21-4:25에서 어떤 신학적 논리를 갖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로마서 4장에 등장한 아브라함 예를 3:21-4:25에 빈번히 등장하는 πίστ- 어근 단어들에 주목하면서 연구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예는 로마서 4장의 주요 테마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는 3:21-31에 있는 πίστ- 단어 주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다음의 세 가지 시각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평가할 것이다. (1)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원형이라고 보는 시각, (2) 아브라함의 πίστις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선례(prefiguration)라고 보는 시각, (3)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선조이기 때문에 등장했다는 시각(이것은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서 4장이 쓰여졌다는 시각과 연결된다). 결국 이런 이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우리는 ‘믿음의 법’이란 필자의 논지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줄 뿐 아니라 πίστ- 단어들에 흐르는 바울의 주장을 잘 밝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 Πίστις Χριστου 읽기와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πίστις와 로마서 3:21-26(더 넓게는 3:21-31)에 나타난 πίστ- 단어들을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신칭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칭의와 연결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예수의 신실함과 연결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3:21-26(또는 3:21-31)의 πίστ- 단어와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연결시킬

때 3:22a에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1.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형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을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읽는 해석자들은(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종종 로마서 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칭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칭의와 (참조, 3:21-26) 긴밀히 연결시킨다. 하지만 그 연관 관계에 대한 구체적 견해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과 동일하다는 다소 극단적인 견해를 편다. 예를 들어 홀스트(Holst)는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것과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속 역사의 스펙트럼 속에 양 끝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¹²⁾ 왜냐하면 홀스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yes)이기 때문이다.’¹³⁾ 헨손(Hanson)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다. 그에 따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바울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가? 꼭 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그렇다. 그[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과 그리스도인들의 그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¹⁴⁾

12) Holst, “The Meaning of ‘Abraham Believed God’ in Romans 4: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9 (1997), 326.

13) Ibid., 326. 그러나 목적격적 소유격 읽기의 대표 학자 중 한 사람인 딘[Dunn, *Romans 1-8*, Word Biblical Commentary 38A (Dallas: Word, 1988), 240]은 이 예표 이론에 반대한다.

14) Hanson, *Studies in Paul’s Technique and Theology* (London: SPCK, 1974), 66.

그러나 이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점을 오히려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롬 4:3, 5, 17).¹⁵⁾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시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만일 바울이 동일시켰다면 최소한 4:24-25에서만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점을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조차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은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동일시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홀스트와 헨손의 주장 같은 ‘동일시 이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영(Yeung)은 유대적 배경을 연구해 이러한 동일시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¹⁶⁾ 그는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하나님 대변자를 믿는 것이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겨졌던 점’을 상기시키면서¹⁷⁾ 유대 미드라쉬에서 하나님 대변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 바울이 그런 해석학적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을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과 창의적으로 동일시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구주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시한다(롬 4:13-24). 이와 유사한 동일시가 유대교 안에 없지 않았다. 베살라(Tractate Beshallah of Mekilta)에 나타난 믿음의 성격에 대한

15) 참조, Boers, *Theology out of the Ghetto* (Leiden: Brill, 1971), 91; Cranford, “Abraham in Romans 4: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NTS* 41 (1995), 87; Stowers, *A Rereading of Romans: Justice, Jews and Genti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247-248.

16) Yeung, *Faith in Jesus & Paul: A Comparison with Special Reference to ‘Faith That Can Remove Mountains’ and ‘Your Faith Has Healed/Saved You’* (Tübingen: Mohr-Siebeck, 2002), 141-144, 169, 267, 283.

17) *Ibid.*, 169.

설명이 그 한 가지 예이다...아마도 이런 종류의 동일시가 유대교 미드라쉬에 일반적이었을 것이고, 바울은 유대교의 이런 해석학적 탄력에 힘입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동일시켰다.¹⁸⁾

언뜻 보면 영의 연구와 논의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제2성전기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의 대변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시켰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영은 충분한 예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아마도’ 이런 동일시가 ‘유대교 미드라쉬에서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¹⁹⁾ 그러나 그의 단정은 증거가 더 필요하다. 분명한 확신을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증거와 적절한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²⁰⁾

둘째, 더 큰 문제는 만일 영의 가정이 맞다 하더라도 그의 동일시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영은 반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시 할 때 필요한 논리적 연결 고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을 믿는 것(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연결 고리는 그 반대 방향의 논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대변인을 믿는 것(즉,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시켰다는 것이 필요하다.²¹⁾ 다음의 두 가지 설명이 이를 좁

18) Ibid., 267, 283. 인용은 267.

19) Ibid., 267. 영은 하나의 예를(*Tractate Beshballab*, 4. 124-125, 130-133, 138-143) 제시하고(267), 하박국 폐서를 언급한다(1QpHab, 8.2-3). 그러나 후자의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예가 되기 힘들다.

20) 만일 이런 동일시가 당시에 보편적이지 않았다면 *Tractate Beshballab*의 예는 오히려 영의 주장에 대한 반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이 동일시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이 동일시하려고 했다면 *Tractate Beshballab* 4. 124-125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런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모습은 오히려 바울이 동일화 이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려준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언급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3번 반복; 4:3, 5, 17).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믿는다(참조, 4:24). 따라서 로마서 4장에 있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3:22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과(πίστις Χριστοῦ를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읽은 것과)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즉, 하나님의 대변인을) 믿는 것과 동일시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그 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영에게 필요한 논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대변인을 믿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전제이다.²²⁾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쉽게 가지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런 전제는 어떤 면에서 신인(神人)의 모습을 가정하기 때문이다.²³⁾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의 가정(假定)은 로마서 4장에 나타난 하나님 믿는 믿음에 적용되기보다 자연스럽게 3:22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을 목적격으로 읽는 것에 적용된다. 그러면 하나님 대변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그의 전제는 결국 (3:22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 믿는 믿음과 동일시되었

21) 이 두 명제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변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단지 **충분**조건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를 믿는 것’에 대한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논리 전개 순서가 영의 이론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충분, 필요조건의 의미와 용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llwood, eds., *Logic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40-41; Copi, *Introduction to Logic* (New York: Macmillan, 1978), 284-285; Alexander, *The Language and Logic of Philosophy*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8), 273-274.

22) 완전히 동일시하기 위해선 양쪽 방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되면 자연히 그 대변자의 신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23) 사실 이런 전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1에서 요한의 예수는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πιστεύετε εἰ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εἰς ἐμὲ πιστεύετε)’고 말한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종류의 논리를 로마서 4장에서 말하지 않는다.

다는 방향으로 이끈다.²⁴⁾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3:22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된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예는 3:22의 πίστι- 단어들과 잘 맞아 떨어진다(바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읽기가 그리스도를 믿어(πίστις Χριστοῦ의 목적격적 소유격 읽기)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3:21-26) 주요 논지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격적 읽기는 바울 논외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의 제안은 로마서 4장에 있는 하나님 믿는(아브라함의) 믿음과 3:22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적절히 연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의 노력과 논의는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에 대한 목적격적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간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어려움으로 어떤 해석자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은혜에 반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해석자들은 단지 믿음의 궁극적 대상이 하나님이란 점만 거론하며 이 어려움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²⁵⁾

24) 이런 점에서 영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가 *Tractate Beshballa*에서 보인 예가[Yeung, *Faith in Jesus and Paul: A Comparison with Special Reference to 'Faith that Can Remove Mountains' and 'Your Faith Has Healed/Saved You,'* 267]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Tractate Beshballa*, 4. 124-125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목자'(즉, 모세)를 믿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말씀하시고 세상을 있게 하신) '주'를 믿는 것에 초점을 둔다.

25) 대표적으로 무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62).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대해 아브라함이 반응하여 믿음을 보였다는 점이고, 이러한 점은 창세기나 로마서에서 동일하다." 결국 무는 신자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Moo, *The Epistle*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대상을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4번이나 ‘하나님’이라고 밝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의 원형으로 보는 시각에 분명히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²⁶⁾ 둘째, 결과적으로 학자들의 애매한 입장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을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읽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애매한 입장은 회피일 뿐이다.²⁷⁾

2.2. 아브라함의 πίστις: 예수의 신실함에 대한 선례

로마서 4장과 3:21-26에 등장하는 πίστ- 단어 주제들을 연결시키는 두 번째 방식은 3:22의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구(句)를 주격적 소유격으로(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읽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도 4장의 πίστις 주제와 연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예수의 신실함을 설명하지 않고 대신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격적 소유격 해석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인 후커(Hooker)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셨기에 이신칭의에 어울

to the Romans, 288). 참조, Stuhlmacher, *Der Brief an die Römer*, NTD 6 (Göttingen and Zürich: Vandenhoeck & Ruprecht, 1989), 68, 70; Barrett, *The Epistle to the Romans*, BNTC, 2nd ed. (London: A&C Black, 1991), 92-93; Morris, *The Epistle to the Romans* (PNTC, Leicester: Apollos, 1988), 193, 214; Osborne, *Romans* (Downers Grove: IVP, 2004), 106-107, 122;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69-370. Dunn, *Romans 1-8*, 223, 239-240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6) Campbell, *The Quest for Paul's Gospel: A Suggested Strategy* (London: T & T Clark, 2005), 193-195를 보라.

27) 보어(Boers)는 전통적 읽기를 가정하지만 이러한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Boers, *Theology out of the Ghetto*, 91.].

리지 않은 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이신칭의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가 거론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언급된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즉, 아브라함은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반영한 ‘경건치 않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이다.²⁸⁾ 이런 후커의 설명은 문제에 어느 정도 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는 로마서 4장의 πίστις와 3:21-26에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의 주격 읽기(즉,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란 뜻) 사이의 연결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시도는 로마서 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선례(先例, prefiguration)라고 보는 시각이다. 헤이스(Hays)는 한때 ‘아브라함은 바울에게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에 대한 모범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형적으로 미리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생각했다.²⁹⁾ 유사하게 스토우어스(Stowers)도 ‘조상 아브라함’을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선례’라고 보고 있다.³⁰⁾ 그러나 이런 시도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예, 창 12:10-20; 16:1-6; 17:17-18; 20:1-18). 아브라함의 모습은 시종일관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잘 맞지 않는다.³¹⁾ 둘째, 아브라함의 πίστις에 대한 로마서의 묘사도 어떤 면에서 이러한 연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제2성전기 유대교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순종을 부각하며 종종 아브라함을 신실함의 모델로 묘사하고 있지만(e.g. 1Macc, 2:51-52; Sir, 44:20-21),³²⁾ 바울은 그러한 경향을

28) Hooker, “ΠΙΣΤΙΣ ΧΡΙΣΤΟΥ,” *NTS* 35 (1989), 325-326.

29) Hays, “‘Have we found Abraham to be our forefather according to the flesh?’ A Reconsideration of Romans 4:1,” *NovT* 27 (1985), 98.

30) Stowers, *A Rereading of Romans: Justice, Jews and Gentiles*, 248. 참조, Campbell, *The Quest for Paul's Gospel: A Suggested Strategy*, 194.

31) 이것이 바로 후커가 이전에 말한 점이다. 혹자는 여기에 사용된 신실함의 뜻이 ‘완벽’의 개념이 아니라 ‘인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연결이 가능하다고 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삶을 먼저 말하기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먼저 서술함으로(특별히 로마서 4:1-8에서) 은연중에 그런 해석 경향에 반대하고 있다.³³⁾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묘사할 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런 해석 경향을 거스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³⁴⁾ 비록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예, 4:19, 20)³⁵⁾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라는 측면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예, 4:5, 12).³⁶⁾ 셋째,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이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연결하는 해석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4:23-25에서 바울은

-
- 32) 참조, Hansen, *Abraham in Galatians: Epistolary and Rhetorical Contexts*, JSNTSup 29 (Sheffield: JSOT Press, 1989), 175-199; Siker, *Disinheriting the Jews: Abraham in Early Christian Controvers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1), 22-24; Yeung, *Faith in Jesus & Paul: A Comparison With Special Reference to 'Faith That Can Remove Mountains' and 'Your Faith Has Healed/Saved You*, 232-263.
- 33)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136-138(5.4.2.3)과 그곳에 있는 각주 65를 보라. 특별히 로마서 4:3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이 점에 매우 중요하다.
- 34) Dunn, "Once More, PISTIS CRISTOU," *Pauline Theology: Volume IV: Looking Back Pressing on*, 76은 유사하게 주격적 소유격 학자들을 반대할 때 이 점을 지적한다. Witherington,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4), 130도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시험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이 신실함보다는 믿음에 초점을 두려는 바울의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Yeung, *Faith in Jesus & Paul: A Comparison With Special Reference to 'Faith That Can Remove Mountains' and 'Your Faith Has Healed/Saved You*, 265은 창세기 15:6과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분리하려는 생각이 바울에게 나왔다고 본다. Hahn, "Genesis 15, 6 im Neuen Testament,"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H. W. Wolff, ed. (München: Kaiser, 1971), 99 참조.
- 35) 참조, Adams, "Abraham's Faith and Gentile Disobedience: Textual Links Between Romans 1 and 4," *JSNT* 65 (1997), 47-66.
- 36) 참조,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55-256, 264-265; Yeung, *Faith in Jesus & Paul: A Comparison With Special Reference to 'Faith That Can Remove Mountains' and 'Your Faith Has Healed/Saved You*, 226-232.

아주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결국 나중에 헤이스는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선례로 보는 시각을 철회하고, ‘아브라함은 모형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예시하고 있다.’라고 말한다.³⁷⁾ 이렇게 말함으로써 헤이스는 후커처럼 3:21-26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란 주제를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πίστις와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헤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바울이] 믿음에 대한 모형으로 예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다.³⁸⁾

이처럼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πίστις와 3:21-26에 있는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의 주격 읽기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³⁹⁾

3. 아브라함: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모두의 조상

결국 앞의 두 입장이 갖는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πίστις에 대한 다른 설명의 길을 열어 준다. 아브라함의 πίστις가 언급된 이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

37) Hays, “ΠΙΣΤΙΣ and Pauline Christology: What is at Stake?” 47-48, 52-53.

38) Ibid., 48.

39) 던은 이런 부적절함이 주격적 소유격 읽기가 옳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Dunn, “Once More, ΠΙΣΤΙΣ CRISTOU,” 75-76).

하지만 그 공통분모는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받는 예로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선례로 등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3.1. 다양한 견해, 그러나 공통된 기반

헤이스는 이 입장의 뿌리가 되는 점을 시사한다. 그는 ‘로마서 3:27-31의 주요 주체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보면서⁴⁰⁾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3:31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¹⁾ 헤이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 장[로마서 4장]에 있는 중심적 이슈는 아브라함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라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누구의 조상이며 또한 그 자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와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점이다. 바울 논의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공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⁴²⁾

라이트(Wright)도 유사하게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4장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반대한다. 전통적 해석은 로마서 4장이 로마서 3:21-31에 있는 바울의 이신칭의 주장을 성경

40) Hays, “‘Have we found Abraham to be our forefather according to the flesh?’ A Reconsideration of Romans 4:1,” 88.

41) Ibid., 89-93; Dunn, “Once More, PISTIS CRISTOU,” 47-48.

42) Hays, “‘Have we found Abraham to be our forefather according to the flesh?’ A Reconsideration of Romans 4:1,” 97.

구절로 증명하거나 더 나아가 이신칭의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라이트는 로마서 4장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바울은 창세기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가계(家系)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⁴³⁾ 그래서 라이트에 따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백성된 명확한 배지(badge)라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배지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칭의 받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⁴⁾

던(Dunn)은 바울이 로마서 3:21-31에서 유대인의 토라 우월주의를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을 이런 시각에서 읽으려고 한다. 던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 4장이 바울의 이전 논의의 핵심을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본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의롭다 하시며 할레자에게만 구원의 의를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⁴⁵⁾ 그럼에도 던은 [크랜포드(Cranford)가 지적하듯이]⁴⁶⁾ 4:1-15를 주석할 때 이 점을 충분히 해명한 것 같지 않다. 그 주석에서 오히려 던은 아직 전통적 입장의 단면을 붙들고 있는 것 같다. 그는 특별히 4:4-5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원형’이라고 생각한다.⁴⁷⁾

43) Wright, “Romans,” 487.

44) Ibid., 488.

45) Dunn, *Romans 1-8*, 196.

46) Cranford, “Abraham in Romans 4: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71-72. 참조, Dunn, *Romans 1-8*, 198-241. 또한 던이 로마서 4장을 다룬 것에 대한 실바(Silva)의 비평을 참조하라. Silva, “The Law and Christianity: Dunn’s New Synthesi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3/2 (1991), 352-353.

47) Dunn, *Romans 1-8*, 228-229, 239. 그러나 던은 그의 생각을 다른 곳에서 발전시킨 다[Dunn, “In Search of Common Ground,” *Paul and the Mosaic Law: The Third Durham-Tbingen Research Symposium on Earliest Christianity and Judaism*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2001), 331-332;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366-367]. 그는 여기서 4:4-5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바울이 대답자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던은 4:4-5의 내용이 바울

크랜포드는 로마서 4장에 대한 던의 논점을 더 발전시킨다.⁴⁸⁾ 크랜포드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시종일관 한 의도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⁴⁹⁾ 결국 크랜포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로마서에서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이신칭의 되는가에 대한 모델로 사용되지 않았다...오히려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그들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연계되어 의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표 조상으로 등장한 것이다.⁵⁰⁾

3.2. 남는 의문들

이 대목에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예가 등장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πίστις와 로마서 3:21-26에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을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이런 어려움과 관련해 아브라함의 πίστις가 아브라함의 대표성 때문에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라는 점 때문에 언급되었다는 생각이 주목 받게 되었고 점차 여러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⁵¹⁾

과 그 대담자 사이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Yeung, *Faith in Jesus & Paul: A Comparison With Special Reference to ‘Faith That Can Remove Mountains’ and ‘Your Faith Has Healed/Saved You*, 228-232은 던의 이런 생각이 해석의 분명한 변화라고 지적하고 비평한다.

48) Cranford, “Abraham in Romans 4: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71-88.

49) Ibid., 88.

50) Ibid.

51) 예를 들어 Esler, *Conflict and Identity in Romans: The Social Setting of Paul’s Lett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171-194는 아브라함을 ‘새로운 내집단(內集

(3) 이런 분위기 속에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주제, 더 나아가 3:21-26에 있는 πίστ- 단어 주제가 점차적으로 (유대인-이방인의 동등성 주제에 뒤쳐진) 부차적인 주제로 취급되고 있다.

여기서 일련의 질문이 생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점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세 번째 요점을 지지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 앞의 두 가지 요점을 받아들이면 곧 로마서 4장에 있는 πίστ- 단어 주제가 중심적이라는 점을 포기해야 하는가? 혹 3:21-26의 πίστ- 단어 주제와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예를 연결시키는 다른 방식은 없는가? 두 번째 요점이 곧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예를 로마서 3:22b[즉, οὐ γὰρ ἐστὶν διαστολή (‘차별이 없느니라’)]와 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로마서 4장에 있는 πίστ- 단어 주제가 너무 빈번하고 매우 두드러져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논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해한 ‘믿음의 법’과 코드화된 πίστις 형식은 이런 질문들에 결정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4.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예수 믿는(그리스도인) 믿음의 원형으로 제시하지도 않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선례로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법을 통해’ 창조되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소개한다. 믿음의 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團) 정체성(the new ingroup identity, ‘로마에서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비유대인 제자들’)의 원형으로 본다. 또한 다음 자료들도 참조하라. Tobin, “What Shall We Say that Abraham Found? The Controversy behind Romans 4,” *HTR* 88:4 (1995), 437-452; Tobin, *Paul’s Rhetoric in Its Contexts: The Argument of Romans* (Peabody: Hendrickson, 2004), 124-154; Boers, *The Justification of the Gentiles* (Peabody, MA: Hendrickson, 1994), 101-110.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결과를 낸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칭의의 대표격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곧 믿음의 법이 실현된 대표적 예가 된다. 따라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제시해 자기가 3:22에서(넓게는 3:21-26에서) 설명했다 3:27b에서 요약했던 ‘믿음의 법’이란 주장을 정당화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법으로 창조되는 새 이스라엘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⁵²⁾

사실 이런 생각과 논리는 3:27b-28을 말할 때 이미 드러났었다. 3:27b에 있는 믿음의 법(νόμος πίστεως)에 대한 증거로, 바울은 3:28에서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제시했다.⁵³⁾ 다시 말해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면 그 사실은 3:21-26에서 설명한(그리고 3:27b에서 요약한) 믿음의 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더구나 3:28은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예를 (더 구체적으로는 4:1-8의 내용을) 내다 본다. 그렇다면 결국 4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결국 3:27b에 있는 ‘믿음의 법’을 지지하는 것이 되고, 결과 4장의 3:22에 표명했던 선언 전체를 (단순히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형식만 아니라 3:22에 있는 πίστ- 주제 전체를) 증거하는 것이 된다. 이런 논의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3:21-4:25 문단을 분석하고 이어 3:21-26과 3:27-4:25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4.1. 로마서 3:27-4:25 본문 구조 분석

먼저 3:27-31과 4:1-15사이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자랑의 주제가 3:27-31 문단을 끌고 가는 중심 모티브라고 보기도 하지

52)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환유적 동기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기억하라. 참조,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116[4.4.4.2.-(B)].

53) Ibid., 136-138(5.4.2.3)

만⁵⁴⁾ 그 보다는 세 가지 다른 주제가 상호 연관되면서 독립적으로 언급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1) 자랑할 수 없음(3:27-28), (2) 이방인과 유대인의 동등함(3:29-30), (3) 율법의 기능에 대한 오해(3:31).⁵⁵⁾ 이 세 가지 세부 주제는 3:27-31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단지 매우 간략한 질문과 답변만 제시된다. 각 주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4:1-8, 9-12, 13-15에서 각각 다루어진다.⁵⁶⁾

로마서 4장과 이전 문단을 연결시키려는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그 결론은 다양하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한 두 구절이 로마서 4장과 관련되었다고 본다. (1) 3:31[가장 보편적 견해, 린돈(Liddon), 나이그렌(Nygren), 지슬러(Ziesler), 라이네(Rhyne), 헤이스],⁵⁷⁾ (2) 3:27(크랜필드

54) 참조,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ume I: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Romans 1-8*, 218; Dunn, *Romans 1-8*, 184-185;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59.

55) 참조,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46; Byrne, *Romans*, 136.

56) 4:1(2)-8과 4:9-12로 문단 나누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4:13-15을 한 문단으로 보는 것은 드물다. 여러 해석자들은 4:13-15의 주제가 다음 구절들로 계속 이어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4:13-17 (Osborne, *Romans*, 105-106), 4:13-17a (Cranfield, "Abraham in Romans 4: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224; Dunn, *Romans 1-8*, 233-235; Tobin, "What Shall We Say that Abraham Found? The Controversy behind Romans 4," 437, 443; Tobin, *Paul's Rhetoric in Its Contexts: The Argument of Romans*, 145). 그리고 4:13-25,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G.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117-129. 약속과 후사의 주제가 4:13-15 문단을 뒤따르는 구절들과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에 분리시켜야 한다. (1) 4:13-15의 초점은 약속이나 후사가 아니라 율법의 기능 이해에 대한 것이다. 약속된 후손이란 주제는 뒤따르는 구절들에서 두드러진 것이다. (2) 4:13-15의 관심은 3:31의 관심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뒤따라오는 구절들과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3) 4:16의 도입 구(旬)인 δὲ τούτο 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다(Wright, "Romans," 497). 라이트(Wright, "Romans," 487)는 논의 주제에 따라 세 가지 문단으로 적절하게 구분했다(4:1-8 대신) 4:2-8, 9-12, 13-15]. 그럼에도 그는 이 세 문단이 이전 문단인 3:27-31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57) Liddon, *Explanatory Analysis of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Longmans, 1893), 80-81; Nygren, *Commentary on Romans*, Carl C. Rasmussen, trans. (London:

(Cranfield)⁵⁸⁾, (3) 3:27과 3:31 배럴(Barrett).⁵⁹⁾ 둘째, 어떤 사람들은 3:21-31 전체가 로마서 4장과 연결된다고 본다(케제만(Käsemann), 던, 피츠마이어(Fitzmyer), 사이커(Siker)].⁶⁰⁾ 셋째, 다른 학자들은 중도의 입장에서 3:27-31을 4장과 연결하려고 한다(목스니스(Moxnes), 헤리스빌(Harrisville III), 무].⁶¹⁾ [스토우어스(Stowers)는 3:27-4:2a를 4:2b-25와 연결시킨다.]⁶²⁾ 이 입장들 중에 세 번째 입장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3:27-31과 로마서 4장 사이에 등장하는 언어적 병행이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이다.⁶³⁾ 목스니스가 제시한 구조적 연결은, 즉 3:27-28, 29-30, 31을

SCM Press, 1952), 167; Ziesler, *Paul's Letter to the Romans*, TPI New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Philadelphia: SCM, 1989), 120; Rhyne, *Faith Establishes the Law*, SBLDS 55 (Chico, CA: Scholars Press, 1981), 30-32; Hays, "'Have we found Abraham to be our forefather according to the flesh?' A Reconsideration of Romans 4:1," 86 (*inter alia*).

58)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ume I: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Romans 1-8*, 224.

59) Barrett, *The Epistle to the Romans*, 82.

60)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91-129; Dunn, *Romans 1-8*, 196;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69; Siker, *Disinheriting the Jews: Abraham in Early Christian Controversy*, 54.

61) Moxnes, *Theology in Conflict: Studies in Paul's Understanding of God in Romans*, NovTsup 53 (Leiden: Brill, 1980), 223-230; Harrisville III, *The Figure of Abraham in the Epistles of St. Paul: In the Footsteps of Abraham* (San Francisco: Mellen, 1992), 21-22;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44-245. 토빈도 3:27-31과 로마서 4장 사이의 연결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Tobin, *Paul's Rhetoric in Its Contexts: The Argument of Romans*, 143) 3:27-28에 두 가지 분리된 주제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다(결과적으로 3:27-31 안에 네 가지 질문과 대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그는(Tobin, *Paul's Rhetoric in Its Contexts: The Argument of Romans*, 143-152) 문단들 사이의 정확한 연결점을 서술하지 못한다.

62) Stowers, *The Diatribe and Paul's Letter to the Romans* (Chico: Scholars Press, 1981), 164-173.

63) 다음의 자료들이 지적하는 언어적 병행을 참조하라. Moxnes, *Theology in Conflict: Studies in Paul's Understanding of God in Romans*, 228, 각주 66(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관찰이다); Siker, *Disinheriting the Jews: Abraham in Early Christian Controversy*, 54; Tobin, "What Shall We Say that Abraham Found? The Controversy behind

4:1-8, 9-12, 13-22과 연결시킨 시도는 그 구조적 간결성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⁶⁴⁾ 그럼에도 그가 3:31과 4:13-22를 연결시킨 견해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그는 3:31의 내용이 율법의 기능에 대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했다. 둘째, 3:31과 4:13-22을 관련시킬 때 목스니스가 주목한 ‘노모스(νόμος)’와 ‘약속’ 사이의 연관과 대조는 (사실 이점이 그에게 3:31과 4:13-22을 연결하게 만드는 데)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⁶⁵⁾ 셋째, 목스니스는 4:16a이 새 문단을 도입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⁶⁶⁾ 결과적으로 3:31은 4:13-15과만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낫다. 따라서 3:27-28, 29-30, 31은 각각 4:1-8, 9-12, 13-15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은 특별히 3:27-31과 4:1-15 사이에 등장하는 (1) 언어적 병행과 (2) 주제의 유사성으로 확인될 수 있다. <표 1>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로마서 4:1-15에서 바울은 이전에(3:27-31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이슈를 주로 아브라함의 예로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4:16-25에서 그 결론을 도출하면서 처음에 3:21-26에 선언했던 주장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말한다.⁶⁷⁾ 바울이 설명한 이 함의가 우리 논의에 중요하다.

Romans 4,” 442, 각주 12;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44, 각주 1.

64) 목스니스(Moxnes, *Theology in Conflict: Studies in Paul's Understanding of God in Romans*, 223-230)는 3:27-31을 로마서 4장의 도입으로 보면서 이런 상호연관을 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45)의 병형 모델도 참조하라.

65) 무(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45, 각주 2)도 이와 같이 생각한다.

66) 참조, Wright, “Romans,” 497. 또한 필자의 이후 설명을 보라.

67)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위더링톤(Witherington)은 4:13-25을 로마서 4장의 결론으로 본다(Witherington,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4), 120). 그러나 필자는 4:13-15을 이어진 구절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낫다고 이미 논의했다.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로마서 4:16-25이 결론 문단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첫째, 4:16-25의 내용은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주제를 종합한다(4.3.의 네 번째 요점을 보라). 둘째, 4:16의 도입 부분은 4:16-25이 결론적이고 새로운 문단임을 알려 준다. (1) 바울은 이제 자기 논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미심장한 구(句) 두 개를(즉, διὰ τοῦτο와 ἐκ πίστεως)를 사용한다[ἐκ πίστεως는 이 이후 다음 문단(즉, 5:1-11의) 첫머리(즉, 5:1)에

<표 1> 로마서 3:27-31과 4:1-15 사이의 비교와 연관

내다 볼(3:27-31)		설명(4:1-15)	
간략한 질문과 답		아브라함 예를 가지고 주로 설명	
3:27-28	이슈: 자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4:1-8
	질문과 답 자랑의 가능성/없음(3:27) 이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3:28a)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음(3:28b)	요점 자랑할 가능성/없음(4:1-2) 설명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4:3-5) 하나님이 행위와 상관 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심(4:6-8)	
3:29-30	이슈: 이방인이 포함되는 문제		4:9-12
	질문과 답 유대인만의 하나님인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가?(3:29) 이유 하나님은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3:30)	요점 할례자에게요? 혹은 무할례자에게요?(4:9) 설명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졌다(4:10). 의롭다 여기신 것에 대한 표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4:11).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는 무할례자가 할례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증거한다(4:12).	
3:31	이슈: 율법의 기능에 대한 문제		4:13-15
	질문과 답 믿음(의 법)으로 율법(의 기능)을 무력화하느냐? 아니다(3:31a)	요점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 ⁶⁸⁾ (의 법의 기능)을 통해서(4:13) 만일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라면,	

다시 등장하고 διὰ τοῦτο는 또 다시 이어지는 문단(즉, 5:12-21)의 첫머리(즉, 5:12)에 등장한다는 점을 참조하라.] (2) 또한 바울은 4:16a에서 (5:12처럼) 강조 목적으로 생략법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바울은 4:16-25과 그의 논지 문단인 3:21-26 사이에 연관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점은 우리의 다음 논의에서 (4.3.) 설명할 것이다.

	<p>이유 도리어, 율법(의 참 기능)을 굳게 세운다(3:31b).</p>	<p>약속은 헛것이 된다.⁶⁹⁾(4:14)</p> <p>설명 율법(의 진정한 역할)은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다(4:15).</p>	
--	--	---	--

4.2.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들의 표상인 아브라함

4:16-25의 내용은 앞의 세 가지 이슈를 단순히 반복,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세 가지가 종합되면서 그로 인해 드러나는 함의가 설명되고 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것을 함의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바울은 믿는 사람들(즉, 아브라함의 참 후손, 새 이스라엘)이 칭의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거론한 것이다.⁷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개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들의 표상으로 등장했다.⁷¹⁾

68) 4:13-14에 있는 πιστις를 ‘믿음의 법’으로 보는 논의는 각주 76을 보라.

69) 특별히 3:31a과 4:14에서 καταργέω가 공명되고 있는 점을 관찰하라.

70) 이런 이해와 관련해 세 가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바울은 4:23-25에서 이러한 관심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후사’, ‘조상’이란 단어가 4:16-18에서 빈번히 발견된다는 점이다. 셋째, 첫째와 둘째 요점과 관련해 로마서 4:17에서 바울이 창세기 17:5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71) 3.1.에서 설명된 학자들의 공통적 주장은 일반적으로 이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의 주장은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4:1-15에서가 아니라 4:16-25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4:1-15은 일차적으로 바울이 3:27-31에서 제기한 세 가지 주제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4:16-25의 결론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역할을 한다. 라이트(Wright, “Romans,” 497-499)는 바울이 4:1에서 제기한 의문을 4:16-17에서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크랜포드(Cranford, “Abraham in Romans 4: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87)는 ‘여기(4:16-22)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의 예로 설명되지 않고, 오히려 왜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서술되고 있다.’고 말한다.

4.3. 아브라함의 예는 믿음의 법을 증거함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3:21-4:25 전체 문단에서 논의하고자 한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그 답은 **믿음의 법을 통해**(ἐκ πίστεως) 아브라함의 참 후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조된다는 생각에 있다. 이러한 대답은 다음의 고찰로 더 잘 알 수 있다.

첫째, 4:16-25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3:22a의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πίστις 예를 보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선례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형을 보이고자 함도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 모두(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로 언급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πίστις 예는 오히려 3:22a의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와 잘 어울린다.⁷²⁾ 바울이 (로마서 4장 끝 부분인) 4:24에서 명확하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이런 연관성을 확인시킨다. 이와 같이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는 3:22a에 있는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와 연결되지 않고 뒤따라오는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문구와 연결되어 있다.

둘째, 바울은 의미심장하게도 믿는 모든 자가(즉, 아브라함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여겨졌다는 점**을 강조한다(참조, 4:22-25). 그런데 3:22a의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어구 속에는 ‘의롭게 된다’는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요소가 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구들인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와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πίστις가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문구와 연결된 반면, ‘칭의’의 요소는 그 앞에 있는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와 연결되어 있다.

72) 이런 점에서 3:22b(οὐ γὰρ ἔστιν διαστολή)는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예와 관련해서 좀 더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믿는 모든 자가) 칭의 받는 근거와 토대는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문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로지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3:22a의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해되기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왜냐하면 로마서 4장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칭의 받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논의한 대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⁷³⁾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 (즉, 그 사건의 기초 위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다. 사실 이런 이해에 대한 보충 설명이 3:25-26에 잘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즉,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종말론적 ἱλαστήριον(‘히라스테리온’, 속죄소, 속죄물)으로 세우셨다(3:25).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보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즉, 예수 사건)으로 (창조되는) 사람들을(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3:26).⁷⁴⁾ 아브라함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4:25도 이 점을 명확히 말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⁷⁵⁾ 결국 아브라함 예는(즉,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고 말한 성경 본문에 대한 바울의 해설은)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사건의 효과와 유효성이 이미 역사

73)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89-97.

74)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3:26)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사람들’이란 뜻이기보다 ‘예수의 신실함으로 인한 사람들(즉, 예수 사건으로 인해 창조되는 사람들)’이란 뜻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낫다.

75)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4:25는 3:25-26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4:16-25은 구조적으로 3:21-26과 연결되어 있다.

속에서 실현되고 실증되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로마서 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신칭의 언급은 3:22에 있는 (‘믿음의 원리’라는) 진리, 곧 결과적으로 3:27에서 말한 ‘믿음의 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논지인 ‘믿음의 법’의 진리를 아브라함의 예로 증명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겨진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이런 점에서 4:16a에 ἐκ πίστεως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4:1-15에서 바울은 (3:27-31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이슈를 주로 아브라함의 예로 자세히 설명한다. 그 후 4:16-25에서 자신이 3:21-26에서 제시한 주요 논지를 (4:1-15에서 논의한 것들을 종합하면서) 다시 밝히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중요하게 4:16에서 διὰ τοῦτο라는 말로 문단을 시작하며 (1:17에서 시작했고) 3:21-31에서 자신이 의미 있게 만든 ‘중요한 캐치-프레이즈’(critical catchphrase)인 ἐκ πίστεως를 의미심장하게 다시 사용한다.⁷⁶⁾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διὰ τοῦτο ἐκ πίστεως, 4:16a)라고 간명하게 선언한다. 4:16-25 전체 문단에서 그는 믿음의 법으로 창조되는 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바울은 먼저 4:16a에서 믿음의 법이 가진 역할에 대해 언급한다(율법과 믿음의 법의 역할에 대한 주제, 참조, 4:13-15). 그리고 그 다음에 4:16b-17에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ἐκ πίστεως)

76) 이런 점에서 4:16a의 ἐκ πίστεως는 ‘믿음의 법으로 인하여’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자기 논의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4:13-25과 4:16 사이의 논리적 연결로 볼 때 4:13, 14에서 사용한 πίστις도 또한 ‘믿음의 법’을 가리키는 코드화된 믿음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의 법 사이의 대조가 4:13-14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된다(3:27에 나타난 유사한 대조를 보라. 참조, Lee,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116-120[4.4.4.2.-(C)], 127-129[5.2.2.2.]. 게다가 만일 4:13의 δικαιοσύνης πίστεως를 코드화된 믿음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4:11에 등장한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τῆς πίστεως도 유사한 구(句)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4:11, 13, 14의 πίστις 모두는 코드화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사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이방인과 유대인의 동등성 주제, 참조, 4:9-12).⁷⁷⁾ 이어 바울은 4:18-22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연결시키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설명한다(믿음으로 인한 칭의 주제, 참조, 4:1-8).⁷⁸⁾ 그리고 나서 마침내 바울은 4:23-25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칭의를 선언한다. 결국 모든 믿는 사람들의 칭의는 믿음의 법으로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실은 (참조, 4:1-8의 내용) 믿음의 법을 지지하는 것이 된다(참조, 3:27b-28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다시 기억하라). 또한 이러한 인식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믿는 모든 자들이(참조, 4:9-12의 내용) 믿음의 법을 통해서 등장한다는(참조, 4:13-15의 내용) 결론으로 이끈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이다.⁷⁹⁾ 그러므로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예는 믿음의 법을, 즉 3:21-26에 있는 바울의 중심 논지를 입증하고 있다.

4.4. 우리 논지가 제기된 어려움을 해결함

결국 우리의 논지로 단락 2에서 제기된 어려움과 단락 3에서 말한 의문들은 해결된다. 첫째,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예수 믿는 믿음과 연결

77)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세 가지 주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주제(믿음의 법의 역할 주제)와 두 번째 주제(아브라함의 참 후손 주제)를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78) 다시 바울은 두 번째 주제(아브라함의 참 후손 주제)와 첫 번째 주제(신자의 믿음으로 인한 칭의 주제)를 통합한다. 이처럼 바울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연결시키면서 결론을 확정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διὰ τοῦτο ἐκ πίστεως, 4:16a).

79) 이런 면에서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이 이신칭의의 예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Cranford, “Abraham in Romans 4: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71-88; Wright, “Romans,” 487, 497 참조.) 너무 극단적이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시키거나 예수의 신실함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갖는 어려움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논지는 아브라함의 πίστις가 3:22a의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문구와 연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보여주는 일반성은(즉, 그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문구 속 동사 πιστεύω가 내다보는 (숨겨진) 목적어의 일반성과 연결된다. 둘째, 우리의 이해와 설명은 3:21-4:25 문단에서 πίστ- 단어 주제가 중심적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키고, πίστ- 단어 주제와 유대인-이방인 주제 사이 관계를 적절히 세워준다(이러한 중심성과 관계성은 3:22에서 이미 명확히 윤곽이 그려졌다. 3:22a의 πίστ- 단어 주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어 3:22b에서 동등함의 주제가 등장한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대표성으로 인해 아브라함 예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3:21-4:25 문단에 나타난 πίστ- 단어 주제의 두드러짐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3:21-4:25에 나타난 바울의 신학적 논리 흐름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예의 등장 이유를 적절히 설명한다.

5.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원리, 즉] ‘믿음의 법’이란 필자의 논지를 로마서 3:21-4:25에 나타난 바울의 신학 논의 흐름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특별히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예가 등장한 이유를 엄두에 두면서 다루었다.

아브라함 예가 등장한 이유는 종종 3:22a에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과 관련하여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읽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원형으로 봐왔다. 반면 주격적 소유격 입장은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선례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제안은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목적격적 소유격 입장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시된 본문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고, 반면 주격적 소유격 입장은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연관시키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를 3:22a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과 연결시키려는 데서 연유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 예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 다른 설명이 부각된다. 아브라함은 칭의 주제 때문에 등장했기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주제 때문에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조상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입장은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예를 3:21-31에 있는 πίστ- 단어 주제보다 유대인-이방인 주제와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의 문제는 πίστ- 단어 주제가 3:21-31과 4:1-15에서 빈번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기에 부차적인 주제로 취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의 논지는 3:21-4:25의 πίστ- 단어 주제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논리 흐름을 잘 설명할 뿐 아니라 제기된 어려움들도 해결한다. 3:21-26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초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의롭다함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3:27에서 그런 원리를 믿음의 법이라고 선언한다. 이 믿음의 법을 확증하기 위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른 칭의’를 설명한다.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사람(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칭의가 믿음의 법이 실현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이런 논리가 3:27b-28에 극명하게 요약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그 전에 제기되었던 어려움을 두 가지 면에서 해결해 주고 있다. 첫째, 아브라함의 πίστις는 3:22a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εἰς πάντα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문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목적격적 소유격 입장과 주격적 소유격 입장이 아브라함의 πίστις와 관련해서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을 풀 것이다. 로마서 4장(아브라함의) πίστις가 꼭 3:22a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칭의를 증거하기에 매우 적절한 것이라는 점이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결국 근본적으로 믿음의 법이 가동되고 있다는 증명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표상이라는 점 때문에 등장했고, 아브라함의 이런 위치는 믿음의 법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방인 주제를 πίστ- 단어 주제 밑으로 가게 한다.

이처럼 필자의 논지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예가 등장한 이유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3:21-4:25의 πίστ- 단어 주제에 반영된 신학적 논리 흐름을 잘 설명한다. 그러므로 3:21-4:25에 나타난 신학적 논리 흐름으로 보아도 믿음의 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은 증명되고, 결과적으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형식에 대한 주격적 소유격 읽기도 실증된다.

<주요어>

로마서, 믿음, 믿음의 법, 새 관점, 아브라함, 언약적 신율주의, 유대인-이방인, 율법, 피스티스 크리스투 논쟁

<Key words>

Romans, Faith, The Law of Faith, New Perspective on Paul, Abraham, Covenantal Nomism, Jews-Gentiles, Law, Pistis Christou Debate

참고문헌

-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관점』, 서울: 두란노, 2002.
- 박익수, “Πίστις του Χριστοῦ는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신학과 세계」 41 (2000), 87-127.
- 박익수,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 I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이필찬, 『로마서』, 서울: 이레서원, 2005.
- 이한수, 『로마서 1』, 서울: 이레서원, 2002.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 『갈라디아서·에페소서·필립비서·골로사이서』, 신약성서 새 번역 6, 임승필 역,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2002.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 『로마서·고린토1·2서』, 신약성서 새 번역 6,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2002.
- 차정식, 『로마서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홍인규,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1.
- Adams, E., “Abraham’s Faith and Gentile Disobedience: Textual Links Between Romans 1 and 4,” *JSNT* 65 (1997), 47-66.
- Alexander, H. G., *The Language and Logic of Philosophy*,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8.
- Allwood, J., L. Andersson, and Ö. Dahl, eds., *Logic in Linguistics*, Cambridge: CUP, 1977.
- Barrett, C. K., *The Epistle to the Romans*, BNTC, 2nd ed., London: A&C Black, 1991.
- Boers, H., *The Justification of the Gentiles: Paul’s Letters to the Galatians and Romans*, Peabody: Hendrickson, 1994.
- Boers, H., *Theology out of the Ghetto*, Leiden: E. J. Brill, 1971.
- Byrne, B., *Romans*, SP 6,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6.
- Campbell, D. A., *Romans 1:17- A Crux Interpretum for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JBL* 113 (1994), 265-285.
- Campbell, D. A., *The Quest for Paul’s Gospel: A Suggested Strategy*, London: T & T Clark, 2005.
- Campbell, D. A., *The Rhetoric of Righteousness in Romans 3.21-26*, *JSNTSup* 65,

- Sheffield: SAP, 1992.
- Copi, I. M., *Introduction to Logic*, 5th ed., New York: Macmillan, 1978.
-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ume I: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Romans 1-8*, Edinburgh: T&T Clark, 1975.
- Cranford, M., "Abraham in Romans 4: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NTS* 41 (1995), 71-88.
- Dunn, J. D. G., "In Search of Common Ground," *Paul and the Mosaic Law: The Third Durham-Tbingen Research Symposium on Earliest Christianity and Judaism*,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2001, 309-334; Org. ed., Tübingen: Mohr-Siebeck, 1996
- Dunn, J. D. G., "Once More, PISTIS CRISTOU," *Volume IV: Looking Back, Pressing On*, E. E. Johnson and E. M. Hay, eds., Atlanta: Scholars Press, 1997, 61-81; org. ed. SBLSP, 1991.
- Dunn, J. D. G., *Romans 1-8*, WBC 38A, Dallas: Word, 1988.
- Dunn, J.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 Esler, P. F., *Conflict and Identity in Romans: The Social Setting of Paul's Lett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Fitzmyer, J. A.,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3, New York: Doubleday, 1993.
- Friedrich, G., "Das Gesetz des Glaubens, Röm 3, 27," *TZ* 10 (1954), 401-417.
- Hahn, F., "Genesis 15,6 im Neuen Testament,"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H.W. Wolff, ed.,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90-107.
- Hansen, G. W., *Abraham in Galatians: Epistolary and Rhetorical Contexts*, JSNTSup 29, Sheffield: JSOT Press, 1989.
- Hanson, A. T., *Studies in Paul's Technique and Theology*, London: SPCK/Grand Rapids: Eerdmans, 1974.
- Harrisville III, R. A., *The Figure of Abraham in the Epistles of St. Paul: In the Footsteps of Abraham*, San Francisco: Mellen, 1992.
- Hays, R. B., "'Have we found Abraham to be our forefather according to the flesh?' A Reconsideration of Romans 4:1," *NovT* 27 (1985), 76-98.
- Hays, R. B., "ΠΙΣΤΙΣ and Pauline Christology: What is at Stake?" E. E.

- Johnson and D. M. Hay, eds., Atlanta: Scholars Press, 1997, 35-60; org. ed. *SBLSP*, 1991; reprinted in *Pauline Theology IV: Looking Back*, Pressing On.
- Hays, R. B., *The Faith of Jesus Christ: An Investigation of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SBLDS 56, Chico: Scholars, 1983.
- Holst, R., "The Meaning of 'Abraham Believed God' in Romans 4:3," *WTJ* 59 (1997), 319-326.
- Hooker, M. D., "ΠΙΣΤΙΣ ΧΡΙΣΤΟΥ," *NTS* 35 (1989), 321-342.
- Hübner, H., *Law in Paul's Thought: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Pauline Theology*, J. C. G. Greig, trans., Edinburgh: T&T Clark, 1984; org. ed., *German Das Gesetz bei Paulus: Ein Beitrag zum Werden der paulinischen Theologie*, 1978.
- Käsemann, E., *Commentary on Romans*, G.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org. ed. 1973.
- Lee, J. S., "The Law of Faith in Romans: A Sol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and An Implication for the Nomism Debate," Ph. D. Dissertation, Brunel University, 2006.
- Liddon, H. P., *Explanatory Analysis of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Longmans, 1893.
- MacKnight, J., *A New Literal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Greek, of All the Apostolical Epistles: with a Commentary, and Notes, Philological, Critical, Explanatory, and Practical, to Which is added, a History of the Life of the Apostle Paul*, 6, 2nd ed., London: Longman, Hurst, etc., 1816; org. ed. 1795.
- Moo, D. J.,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Morris, L., *The Epistle to the Romans*, PNTC, Leicester: Apollos, 1988.
- Moxnes, H., *Theology in Conflict: Studies in Paul's Understanding of God in Romans*, NovTsup 53, Leiden: Brill, 1980.
- Nygren, A., *Commentary on Romans*, Carl C. Rasmussen, trans., London: SCM Press, 1952; org. ed. 1944.
- Ogden, C. K., and I. 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23.

- Osborne, G. R., *Romans*, IVPNTC, Downers Grove/Leicester: IVP, 2004.
- Rhyne, C. T., *Faith Establishes the Law*, SBLDS 55, Chico, CA: Scholars Press, 1981.
- Siker, J. S., *Disinheriting the Jews: Abraham in Early Christian Controvers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1.
- Silva, M., "The Law and Christianity: Dunn's New Synthesis," *WTJ* 53 (1991), 339-353.
- Stowers, S. K., *A Rereading of Romans: Justice, Jews and Genti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 Stowers, S. K., *The Diatribe and Paul's Letter to the Romans*, Chico: Scholars Press, 1981.
- Stuhlmacher, P., *Der Brief an die Römer*, NTD 6, Göttingen/Zürich: Vandenhoeck & Ruprecht, 1989.
- Tobin, T. H., "What Shall We Say that Abraham Found? The Controversy behind Romans 4," *HTR* 88:4 (1995), 437-452.
- Tobin, T. H., *Paul's Rhetoric in Its Contexts: The Argument of Romans*, Peabody: Hendrickson, 2004.
- Westerholm, S., *Israel's Law and the Church's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88.
- Wilckens, U., *Der Brief an die Römer, Teilband 1: Röm 1-5*, EKKNT 6/1, Zürich: Benziger/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Witherington III, B.,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4.
- Wright, N. T., "Romans," L. E. Keck, ed., *New Interpreter's Bible X*, Nashville: Abingdon Press, 2002, 393-770.
- Yeung, M. W., *Faith in Jesus and Paul: A Comparison with Special Reference to 'Faith that Can Remove Mountains' and 'Your Faith Has Healed/Saved You,'* WUNT 2/147, Tübingen: Mohr-Siebeck, 2002.
- Ziesler, J., *Paul's Letter to the Romans*, TPI New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Philadelphia: SCM, 1989.

<초록>

믿음의 법과 아브라함(롬 3:21-4:25)

- 믿음과 아브라함 주제가 함의하는 바울의 신학적 논리-

이진섭

(에스라 성경 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로마서 4장이 3:21-31의 내용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보통 4장에서 아브라함 등장 이유를 3:22a에 있는 $\pi\acute{\iota}\sigma\tau\iota\varsigma \chi\rho\iota\sigma\tau\acute{o}\upsilon$ 형식과 관련해 생각한다. $\chi\rho\iota\sigma\tau\acute{o}\upsilon$ 를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읽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원형으로 보아왔고, 주격적 소유격으로 읽는 입장은 아브라함의 $\pi\acute{\iota}\sigma\tau\iota\varsigma$ 를 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선례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의 제안은 둘 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목적격적 소유격 입장은 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시된 점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고, 주격적 소유격 입장은 아브라함의 $\pi\acute{\iota}\sigma\tau\iota\varsigma$ 를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연관시키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새로운 설명이 부각된다. 아브라함은 칭의 주제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 주제 때문에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입장은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예를 3:21-31에 있는 $\pi\acute{\iota}\sigma\tau\text{-}$ 단어 주제보다 유대인-이방인 주제와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pi\acute{\iota}\sigma\tau\text{-}$ 단어 주제가 3:21-31과 4:1-25에 두드러져서 부차적으로 취급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국면에서 필자는 3:27의 ‘믿음의 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3:22 $\pi\acute{\iota}\sigma\tau\iota\varsigma \chi\rho\iota\sigma\tau\acute{o}\upsilon$ 형식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란 뜻을 부여했고 그것이 ‘그리스도 사건 전체’를 가리키도록 했다. 따라서 3:22은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3:21-26은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초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의롭다함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3:27은 그 원리를 ‘믿음의 법’이라고 선언한다. 바울은 이 믿음의 법을 확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을 설명한다.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사람(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이 믿음의 법이 실현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결국 ‘믿음의 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아브라함 등장 이유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더 나아가 3:21-4:25의 πίστ- 단어 주제에 반영된 신학적 논리 흐름을 잘 설명해 준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겨진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bstract>

Faith-Law and Abraham(Romans 3:21-4:25): Paul's Theological Logic Implied in Faith and Abraham Topics.

Prof. Jin Seob Lee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Romans 4 substantiates the contents of 3:21-31. The stance which reads Χριστοῦ as objective genitive(3:22) generally identifies Abraham's justification by faith(Romans 4) with the Christian's justification by faith in Christ and so it views Abraham's faith as a prototype of (Christ-)believers' faith.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ive-genitive stance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3:22) regards Abraham's πίστις as a prefiguration of Christ's faithfulness. However, neither of these two suggestions is easy to accept.

The objective-genitive stance does not successfully overcome the difficulty that in Romans 4 Abraham is presented as believing in God, not Christ, whereas the subjective-genitive stance has a fundamental difficulty in correlating Abraham's *πίστις* with Christ's faithfulness. This inadequacy leads to another explanation for the occurrence of Abraham. Abraham appears not mainly because of the theme of justification by faith but mainly because of the representativeness of Abraham for Jews and Gentiles alike. Consequently, this stance tends to connect the Abraham example in Romans 4 to the theme of *Jews and Gentiles* in 3:21-31 rather than to the *πίστις*-word theme in 3:21-31. However, the *πίστις*-word theme is too prevalent and prominent to be treated as a subsidiary topic in both 3:21-31 and 4:1-25.

In this respect, we argue that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law of faith' in 3:27 solves the problems. Paul thinks that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formula in 3:22a means 'the faithfulness of Christ' and refers to 'the eschatological event of Christ.' Consequently, 3:22 explains the principle that through the Christ-event the believing people appear and, accordingly,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disclosed. 3:21-26 explains that on the basis of the Christ-event all who believe are justified and, then, 3:27 declares it as the faith-law. Moreover, in order to substantiate this faith-law, Paul also demonstrates Abraham's justification by faith not only because Abraham is the representative of all(both Jews and Gentiles) who believe, but also because Abraham's justification (consequently the justification of all believers) is the sign that the faith-law has been in operation.

Thus,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law of faith' in 3:27 resolves several difficulties concerning the reason for the appearance of the Abraham example in Romans 4 and, furthermore, explains well the logical flow of Paul's theological argument regarding the *πίστις*-word theme in 3:21-4:25. The fact that Abraham believes in God and is justified, according to Paul, is ultimately due to the Christ-event.